



문화인의 책架

월간 「춤」 발행인

趙東華 씨



‘문화의 거리’ 東崇路 문예회관 뒷골목, 나지막한 단층집에 ‘琴研齋’란 조그만 현판이 수줍은듯 걸려 있다. 겨우 10평이 될까말까한 이 집에는 늘 이런저런 문화예술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趙東華씨의 서재이자 사랑방이고 「춤」誌 편집실이기도 한 이곳은, 그래서 이 ‘문화의 거리’에서도 가장 특이한 곳이다.

琴研齋가 그렇듯이, 집주인인 趙東華씨(67) 역시 우리 문화예술계에서 아주 ‘특이한 존재’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 藥大출신으로 일찍이 신문에 전공과는 거리가 먼 무용평을 썼는가 하면, 대학강단생활을 거쳐 東亞放送局에서 제작실무 책임을 맡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손수 그린 꽃스케치로 「꽃 이야기」 「꽃과 사랑」이란 책을 엮어내기도 했던 그 경력부터가 특이하지만, 불모의 무용계에서 만13년째 무용전문 월간잡지를 꾸준히 발행해 오고 있는 그 ‘고집’이 그를 더욱 특이한 존재로 만들었다.

이제는 그의 ‘심볼 마크’처럼 되어버린 「춤」誌는 76년 3월 첫호가 나온 이래 한번도 거른 적이 없이 금년 3월호로 통권 156호를 기록하고 있다. 전세계를 통틀어 4가지 밖에 없다는 무용전문 월간지를, 그것도 개인의 힘으로 어렵사리 지탱해 오고 있는 것은 무용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희생적인 사명감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4×6판 160쪽 안팎의 조그만 잡지이지만, 「춤」誌가 불모의 무용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땅에 무용문화를 活着시키는데 핵심적인 구실을 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 못할 것이다. 지난해 중앙일보사의 中央文化大賞(예술부문)이 「춤」誌에 주어진 것도 그러한 노고에 대한 사회적 격려로 받아들여진다.

소탈하면서도 섬세한 성품과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해박한 知見으로 늘 주변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는, 각종 공연예술단체의 자문위원을 맡는 등 幕 뒤의 ‘프롬프터’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그는 굳이 ‘專門人’임을 사양하고 ‘영원한 아마추어’로 머물기를 고집한다. <이승우 주간> 사진·전혜경 기자